리 포 트
이슈 분석

우울증 현황과 보험산업의 역할

장윤미 연구원

요 약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우울증은 자살, 치매,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 보험회사는 우울증 보장 상품 출시와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우울증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대면 접촉이 줄고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우울증 환자는 약 2억 6,400만 명에 달하며 우울증이 질병 부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1)]
- 코로나19 관련 국민 정신건강 추적 연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2)] 의료계 종사자들에서도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3)]
-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7.8명이 극단적 선택을 택한다는 통계[4)]가 있으며, 유명인들의 우울증 관련 자살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음

○ 2019년 우리나라의 우울증 진단자는 약 79만 명이나 숨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우울증은 자살, 치매,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환자 기준 우울증 진단자 수는 2015년 약 60만 1,000명에서 2019년 79만 6,000명으로 최근 4년간(2015~2019년) 연평균 7.3% 증가함
- 실제 우울증 진단자 수는 전체 국민의 1.5%이나 2018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7,992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의 6.1%, 남성의 2.5%가 우울장애유병률 수준을 보여 숨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5)]
-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이 자살을 생각하며[6)] 우울증 과거 병력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자료가 있으며[7)],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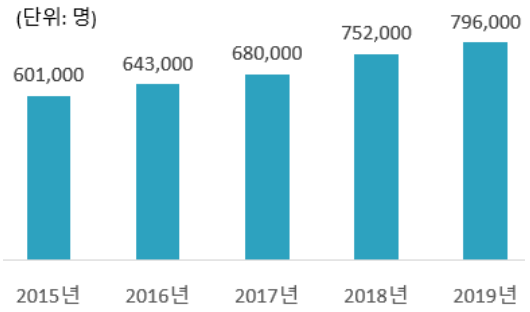
1)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pression
2) https://kumh.korea.ac.kr/kumh/notice/notice.do?mode=view&articleNo=221013
3)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2020), Vol. 35(41)
4)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 통계”
5) 보건복지부(2019. 12),「2018 국민건강통계」
6)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8022002428; 이민수(2013),「최근 우울증의 현황 및 진단」,『병원

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 발생 위험도 남녀 모두에서 더 높게 나타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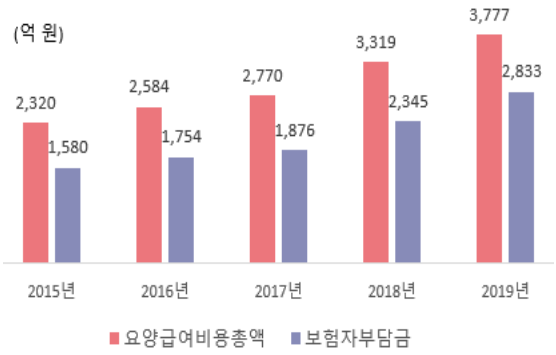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우울증 진단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9)]은 약 3,777억 원으로 최근 4년간(2015~2019년) 연평균 13.0%씩 증가하였으며, 우울증 및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됨[10)]

〈그림 1〉 우울증 진단자 수 및 우울증 진단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우울증 진단자 수 추이



우울증 진단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보험회사는 2016년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우울증 보장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우울증(F32), 재발성우울장애(F33), 공황장애(F41.0),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를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상품을 출시·운영 중임
- 실손보험에서는 우울증, 기억상실증, 편집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대체적으로 증상이 명확하여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장함

○ 생명보험회사가 지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 동 재단은 충동적 자살 시도가 자주 발생하는 교량에 긴급 상담 전화기를 설치하고 SOS 생명의 전화를 24시간 운영함
- 또한 자살위험군 및 자살시도자에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살 유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함

약사회지』, 제30권 제6호, p. 506

7) 김보라 외 3인(2011), 「후기 발병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 치매 발생과의 관련성」,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8)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남성은 41% 여성은 48% 더 높고, 뇌졸중 발생 위험도 남녀 모두 약 30% 더 높았음(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62703920)

9) 요양급여비용총액이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부담금(비급여 제외)을 합한 금액임

10)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치료·입원·교통비)와 간접비(미래소득손실·결근·생산성 감소) 합계 약 3조 3,800억 원,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약 6조 9,900억 원이 발생함; 이선미 외 3인(2013),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우울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9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비로 599명을 지원했고, 자살유가족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으로 총 526명을 후원함

•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종으로 종합상담시스템 '다 들어줄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연극 심리치료·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함

- '다 들어줄 개'는 앱, 카카오플러스친구, 페이스북, SMS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재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음악, 라디오, 공모전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온라인 진단 애플케이션을 통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자가 측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우울증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국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17년 11월부터 영국 스타트업 기업인 바빌론헬스(Babylon Health)가 개발한 인공지능 앱을 통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약 처방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 인도의 손해보험사인 Future Generali는 온라인으로 정신건강을 자가 측정하는 API 및 설문 형식 기반의 총 건강점수(Total Health Score) 평가법을 개발함

• 호주 MLC 생명보험은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 회사인 Best Doctors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Mental Health Navigator'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 이용 고객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두 배로 성장함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비대면 방식의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지만,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인공지능 및 온라인 기반의 우울증 자가 측정 및 예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